

#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중심으로-

이지영\*

## <차례>

1. 서론
2. <문전본풀이>의 이본별 내용 검토
3. 악인형 여성의 실상과 그 전형성 모색
  - 1)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성격
  - 2)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악행의 실상
  - 3)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악인형 여성상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문전본풀이>의 여러 이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신화에 드물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악인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에 주목한 뒤 그녀의 성격과 악행의 실상을 살피고, 이를 통하여 악인형 여성으로서 전형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집필되었다.

먼저, 대표적인 이본으로 안사인본을 선정하고 이 자료의 줄거리를 제시하면서 다른 이본과의 차이점을 살폈다. 줄거리는 <처침간의 갈등담>, <전실 소생과 계모의 갈등담>, <죽은 모친의 회생담과 신격 좌정담>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적 특징은 <칠성풀이>에서 악인이 죽은 전실에 이어 재혼한 후실(곧 계모)로 설정되면서 '계모와 전실 소생의 갈등'이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고, 죽은 모친의 회생담이 일부 지역(호남)의 몇 편의 자료에만 나올 뿐 그밖의 자료에는 거의 누락되어 있다는 점과는 많이 달랐다. <문전>에서 사건의 핵심적 역할은 ‘노일’이 담당하거니와, 그녀는 남선비를 둘러싼 가족관계를 훼손하고 있다. 그의 아내(본처)를 살해하고, 또 남아 있던 전실 소생의 일곱 아들을 죽이려 한다. 그러나 그녀의 음모에 맞서서 막내아들이 활약하는데, 그는 자신의 지혜와 여러 신격들의 도움으로 그녀의 일곱 형제에 대한 살해 음모를 막아낸다.

악인형 여성인 ‘노일’의 성격은 여러모로 본처인 여산부인과 대조적이며 대립적이다. 그녀는 우선 ‘첩, 본부인(본처), 계모’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띤 인물이다. 또한 그녀는 외래인이면서 외래신이면서, 집안의 측간신이기도 하다. ‘노일’은 자연력에 의존한 채취경제 내지는 문화단계가 낮은 음식문화를 영위하는 집단 출신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여산부인은 높은 농경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노일’보다 무속사제자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노일’의 악행의 실상을 일곱 단락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그녀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악하여 1) 남선비의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파괴하고, 2) 남선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의 삶을 파괴하며, 3) 본처를 살해하고 전실 소생의 일곱 아들을 죽이려 한다. 이러한 그녀의 악행에 대해 다른 주인공들은 복수의지를 보이며, 끝내 그녀는 신체가 분리되어 생물로 화생(化生)한다. 이러한 악인에 대한 징치의식은 제주도 무속신화에 두루 발견된다.

‘노일’의 행위를 통해 악인형 여성상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그녀는 유희형 여성이다. 그녀는 바둑 장기에 능하고 노름을 잘하며, 놀고 춤을 잘 춘다. 둘째, 그녀는 남성에게 유혹하며 애정에도 적극적인데다, 질투가 많고 감정에 솔직하며 눈치가 빠른 여성이다. 직설적인 말투를 뱉을 정도로 감정을 잘 드러내는데,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 눈치가 빨라 감정이 돌변한다. 셋째, 그녀는 가정살림을 잘 할 줄 모르는 여성이다. 밥을 할 줄 모르고 살림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이 점은 특히 여산부인과 대조적이다. 넷째, 그녀는 거짓말, 꾀, 그리고 속임수에 능하고 모든 일에 용의주도한 계산형 여성이다. 이러한 모습은 남선비, 여산부인, 그리고 일곱 형제들에게 두루 사용된다. 다섯째, 그녀는 사람을 죽일 줄 아는 냉혈적인 여성이다. 본처를 죽였고, 전실 소생의 일곱 형제를 죽이려 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행위는 쟁충형 가정소설과 계모형 가정소설 속의 악인형 여성과 비교하기 어렵다. <문전>에서는 ‘노일’이 본처를 죽이는 이유가 분명치 않아서 그 일이 그녀의 선천적인 성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거니와, 전실 소생을 죽이려는 것은 고전소설에서처럼 그녀가 가족 구성원에게 느끼는 소외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는 ‘노일’이 고전소설의 악녀와 달리 ‘본부인, 첩, 계모’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노일’의 악인형 여성상은 고전소설에서 정형화된 악녀의 이미지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악인, 전형성, 첩, 계모, 가족관계, 노일제대귀일의 딸

## 1. 서론

본고는 ‘고전문학 속의 여성 캐릭터 연구’라는 기획주제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필자가 담당하는 영역은 바로 신화이다. 이번의 기획은 고전문학 속에 등장하는 특징적인 개별 주인공을 택하여, 이 주인공의 성격과 행동 등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이러한 모습들을 현대의 여러 영역에 응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최근에 관심이 부쩍 늘어난 문화콘텐츠 구축 작업 경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신화 속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캐릭터화할 수 있는 여성인물(주인공 여신)을 떠올리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당장 보아도 문헌신화에는 웅녀, 유화 등을, 구전신화에는 당곰아기, 바리데기, 자청비(세경본풀이), 황우양씨 부인(성주굿), 원강아미(이공본풀이), 오늘이(원천강본풀이), 노일제대귀일의 딸(문전본풀이), 그리고 선문대할망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인데, 이들 가운데 보기 드물게 악인형 인물로 간주되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눈에 뜨인다. 그녀를 두고 이수자는 ‘우리 신화에 나타나는 인물 중 가장 전형적인 악인형’<sup>1)</sup>이라 하였거니와, 제주도에 전승되고 있는 <문전본풀이>를 보면, 그녀는 남선비를 꺾어 노름으로 그의 돈을 탕진시키고 그와 살다가 본부인인 여산부인을 살해하였으며, 본부인 행세를 하고 남선비의 고향에 함께 따라 간 뒤 그의 일곱 아들을 죽이려는 악행을 저지른다. 이러한 그녀의 행적은 <이공본풀이>에서, 종살이하던 원강아미를 겁탈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그녀의 아들 한락궁이를 꺾박하고, 한락궁이가 도망하자 끝내 그녀를 무참히 살해하여 대나무밭에 버린 ‘장자’의 그것과 쌍벽을 이룬다.

그런데 ‘노일’은 첩의 모습을 지니면서도 본부인과 계모의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어서 그 정체가 복합적인데다가, 악행이 발각되어 자살한 뒤에 신격화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면은 육지의 <칠성풀이>와 비교할 때 제주도본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내용이다. 아울러 그녀의 악행은 가정소설(치첩형이건, 계모형이건)에 등장하는 계모의 그것들과도 비교가 된다. 필자는 <문전본풀이>의 여러 이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노일’의 성격과 그녀의 악행의 실상을 살피고, 이를 통하여 악인형 여성으로서 전형성을 모색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앞서 지적한 대로, 우리 무속신화에서 보기드문 이러한 악인형 여성상이 오늘의 여러 문화 예술 영역에서 충분히 캐릭터로 활용

1) 이수자, 「제주도 큰굿 내의 신화에 나타난 가족 구성상의 특징과 의의」, 『구비문학연구』 제1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1.6, 247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문전본풀이>의 이본별 내용 검토

제주도의 무속굿에서 구연되는 <문전본풀이>(이하 <문전>)는 집 안에서 행해지는 큰굿에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한다. 그래서 상위의 여러 신들에게 필요한 제차(祭次)를 끝내고 나면, 굿의 끝 무렵에 집 안의 여러 곳을 차지한 신을 대접하고 기원하는 각도비념 제차에서 맨 먼저 이 신화를 구연한다. 그러나 문전신에 대한 내력담이면서도, 문전신 외에 조왕, 측간신, 주목지신, 오방토신 등 주택의 각각을 차지하여 지켜주는 신들의 좌정 과정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서 단순히 문전신의 내력담에 한정되지 않는다.<sup>2)</sup> 신화의 줄거리로만 놓고 보면, 육지의 <칠성풀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둘을 같이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칠성풀이>는 축원굿뿐만 아니라 씻김굿에서도 불려지고 있어서, 두 신화는 지역적 차이뿐만 아니라 구송되는 굿의 성격이나 기능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주도 <문전본풀이>를 대상으로 논의하되, 필요하면 육지본 <칠성풀이>를 거론하기로 한다.

채록된 자료는 여럿인데, 필자가 확인하고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전본풀리(박봉춘本), 적송지성 외, 『조선무속의 연구』 상<sup>3)</sup>
- (2) 문전본풀이(안사인本),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sup>4)</sup>

2) 현용준, 「문전본풀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34면.

3) 赤松智城·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상,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332~336면. 이 자료는 <남선비>라는 이름으로,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99~102면에도 실려 있다.

4)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398~415면. 이 자료는 다음에도 실려 있다.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260~281

- (3) 문전본풀이(고대중본),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sup>5)</sup>
- (4) 문전본(문정봉본), 문창현 필사, 『풍속무음』하<sup>6)</sup>
- (5) 문전본(이춘아본),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sup>7)</sup>
- (6) 문전본(신명옥본),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 (7) 문전본(박남하본),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이 가운데 자료(1)은 일본인이 채록한 탓인지 구어체가 아닌데다 줄거리가 제법 간편한 편이다. 반면에, 자료(2)는 서사적인 긴밀성이 나 줄거리의 완성도가 높고, 죽은 모친의 회생, 그리고 결말에 있어서 여러 인물의 신직 차지 등의 내용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서 대표적이므로 삼을 만하다.<sup>8)</sup> 그래서 (2)의 안사인본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다른 자료와의 차이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가) 남선비와 여산부인이 부부가 되어 가난하게 살면서 아들 일곱을 낳았다. 여산부인은 남선비에게 무곡(貿穀) 장사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남편은 배를 마련하여 오동나라로 갔다. 그 나라에는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남선비를 유혹하였다. 남선비는 그녀와 바둑장기를 두고 내기 놀이를 하다가, 배까지 팔아먹고 돈까지 빼앗겨 그녀의 초막에서 지냈다. 그러다 남선비는 눈까지 멀었다. 삼년 동안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여산부인은 남편을 찾아 오동나라로 갔다. 여산부인은 기장밭에서 아이의 새 쫓는 노래를 듣고, 아이를 통해 남편의 거처를 찾았다. 부인이 남편에게 상을 차려 밥을 먹이자, 비로소 남선비는 부인이 왔음을 알고 그 동안의 일을 이야기하였다.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집에 돌아

면; 현용준, 『제주도신화』, 서문당, 1976, 193~211면.

5)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91~202면.

6) 문창현, 『풍속무음』하(영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4, 301~339면.

7)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03~111면. 자료(6)과 (7)은 같은 책, 111~121면과 121~131면에 각각 실려 있다.

8) 김재용도 이 자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재용, 「〈문전본풀이〉의 무속 신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77면.

오고, 귀일의 딸은 큰부인이 온 것을 알고 갖은 어리광으로 큰부인을 대접하였다. 그녀는 여산부인을 목욕하자 피어내고 등을 밀어주는 척하다가 여산부인을 물 속에 밀어넣어 죽였다. 그리고 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여산부인인 체하며 남선비에게 와서, ‘노일제데귀일의 딸의 행실이 께쌌하여 죽었다고 하였다. 이 말을 곧이들은 남선비는 그녀와 함께 고향에 돌아왔다.

(나) 아들 일곱은 부모를 만나나, 막내 녹디생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님을 간파하고 이어서 다른 형제도 자신의 어머니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눈치를 챈 귀일의 딸은 아들 일곱을 죽일 계락을 꾸며, 배가 아파 죽는 시늉을 하면서 당황하는 남편에게 점을 치도록 하였다. 남편이 점을 치러 나가자 그녀는 지름길로 달려가 점쟁이인 척하면서 기다리다가, ‘아들 일곱의 애(간)를 먹어야 낫겠다.’ 하였다. 아버지가 칼을 갈며 아들들을 죽이려고 할 때, 청태산 마구할망이 마침 불을 빌리러 왔다가 이 일을 알고는 칠형제에게 알려준다. 막내는 혼자 집에 들어가 ‘여섯 형들의 간을 자기가 내어오겠다’고 말하여 아버지로부터 칼을 얻은 뒤, 형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도중에 지쳐 잠이 들었다가 꿈에 어머니의 지시를 들었고, 그들은 그 말대로 산돼지 여섯 마리를 잡아 간을 얻었다. 그것을 막내가 계모에게 가져다주었데, 그녀는 간을 받아먹는 체하며 자리 밑으로 숨겼다. 창문으로 엿보던 막내가 화를 내며 방에 들어가 그녀의 자리를 걷고 여섯 형들이 달려들었다. 그녀는 측간으로 도망가 목을 매어 죽고, 남선비는 올래(골목)에 달아나다 정낭에 목이 걸려 죽었다. 형제는 노일의 시체를 찢어버렸으며 거기에서부터 많은 생물이 생겨났다.

(다) 형제는 서천 꽃밭에 가서 황세곤간을 달래어 환생꽃을 얻어와, 물에 빠져 죽은 어머니를 살려 조왕신으로 앉혔다. 형제는 남선비를 주목지신으로, 노일을 측간신 측도부인으로 앉혔다. 그리고 막내는 앞문전신, 여섯째는 뒷문전신이 각각 되었고, 나머지 형들은 오방장군이 되었다.

이본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자. 처음을 보면, 남선비와 여산부인이 일곱 형제를 낳아 살아가는 내용이 나온다. 주인공 부부의 이름은 남편인 남선비의 경우 모든 이본에 공통적이거나 여산부

인은 차이가 있다. 곧, 보신국(1), 예산국(3), 여선비(4), 토조부인(5), 부인(6), 조정승 따님아기(7) 등등이어서 이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특이하게 자료(7)에는 천상의 하늘옥황 수문장 아들인 남선비가 지상에 내려와서 조정승 따님아기를 만난 뒤, 서로 사랑하여 부모 몰래 집을 나와 따로 살림을 차리는 연애담이 설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가난하여 남선비가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간다는 내용은 대부분 일치하나, 그가 집을 떠난 이유가 (1), (4)에는 ‘흉년 때문에’ 쌀을 사러간다고도 하였고, 게다가 금은 백·만 냥(1, 4, 7)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남선비를 피어내 그의 돈과 배를 빼앗은 여성은 노일저대귀일의 딸인데, 나머지 이본에도 이와 비슷하게 불린다. 곧, 노일저대귀일 딸(1), 노일저대귀일이 딸(3, 4), 노일저대첩(5), 노일저대(6), 귀일이 딸(7) 등이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름에서 ‘노일저대’와 ‘노일저대귀일의 딸’의 관계는 우리의 건국신화에서 ‘하백녀(河伯女)와 하백지녀(河伯之女; 하백의 딸)가 서로 동일인(同一人)으로 간주되는 것과 같은 사례로 이해할 만하다. 그녀가 남선비를 만나 그의 돈을 빼앗고 첩이 된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첩이 되어 그의 돈을 빼앗거나(1), 아양을 떨며 그를 유혹한 뒤(2, 7) 혹은 그에게 숙소를 안내하겠다고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3) 노름으로 돈을 빼앗고, 대접을 나쁘게 하여 음식값으로 돈을 훔치게 한다(5). 더러는 남선비가 그녀의 땀에 빠져(6) 돈을 빼앗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특이하게 (4)에만 남선비가 먼저 주막집을 찾아가 지내다가 돈을 탕진하여 쫓겨나자, 그녀가 남선비를 밤 대접하며 초막에서 같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이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여산부인은 아들들에게 배를 만들어달라고 한 뒤 직접 남편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이본 가운데 배를 타고 나가기 전에 남편을 기다리는 부분이 자세하게 언급되기도 한다. 곧, 끈에 참빗을 매어 바다에 던지며 남편이 죽었으면 혼령이나 올라오라고 빌거나(3), 신을 신고 밤마다 바닷가에 나가 남편을 찾기도 하는데(5),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여 정성을 다하는 경우(6, 7)도 있다.

한편, 아버지와 함께 돌아온 ‘노일’이 자신들의 어머니가 아닌 것을 안 것은 막내 녹디생인이다. 이를 믿지 못하는 형들에게 진짜 어머니임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내세운 것이 ‘집 방향 알기’와 가족들의 ‘밥상 구별하기’이다. 만일 어머니라면 포구에서 내린 뒤 자신의 집이 있는 곳을 쉽게 알 것이고, 어느 밥상이 누구의 것인지 밥을 차릴 때 구별하여 상을 차려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일’은 이런 일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본에 따라 형들은 집안의 열쇠가 든 곳을 모르고(5, 7), 국솥과 밥솥을 구분하지 못하는(7) 것을 보고야 막내의 말을 믿기도 한다.

남선비가 거짓 문복의 말만 믿고 일곱 아들의 간을 내려고 칼을 가는 일을 아는 인물은 남선비의 집을 찾아온 청태산 마구(귀)할망(2, 3, 7)이거나 동네할멈(1), 혹은 앞집할망(4)이다. 더러는 막내가 직접 알기도 한다(6, 5). 그런데 할망이 남선비 집에 온 것은 ‘불씨를 빌리기’(2, 3, 4, 7) 위해서이다. 이는 나중에 이 집의 주인인 여산부인이 ‘조왕신’으로 좌정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또한, 산속에서 형제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동물[토끼; (1), 산돼지; 그 외 6편]의 간을 내도록 지시한 존재는 죽은 어머니(2, 5, 6)이거나, 산신(4)·산신 노루(3)·백발노인(7) 등이어서 다양한 편이다. 특이하게 자료(1)에만 ‘산에서 산토끼 여섯 마리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형제는 죽은 모친을 살리는데, 오직 자료(6)에만 그런 장면이 누락된 채 ‘모친 뼈를 장사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모친이 빠진 연못물은 형제가 하늘이나 용왕에게 기원하거나(2, 3, 7), 7일간 울어서(1), 혹은 직접 바가지로 퍼서(5) 말리거나 없앤다. 그리하여 진흙에 누운 죽은 모친을 서천꽃밭에 가서 꽃을 얻어와(1, 2, 3, 7) 살리는데, 그저 나뭇가지로 뼈를 14번이나 쳐서(4) 살리기도 한다. 모친이 누운 자리흙으로 형제가 시루를 만드는 대목도 있으니(2, 3, 5, 6, 7), 이 시루는 조왕의 불과 관련된다. 끝으로, 신직 차지의 경우, 누가 신직을

부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본마다 조금씩 다르다. 곧, 형제가 부모를 신으로 모시지만, 더러는 모친이 (1), 하늘 수문장이(7), 막내가(3) 모시기도 한다. 신직 차지의 경우 특이하게 7형제가 북두칠성이 되는 자료(5, 6)가 있는데, 이는 육지본(주로 호남) <칠성풀이>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 신화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행위에 주목하되, 먼저 그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 행위에서 보이는 갈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통하여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악인형 인물의 악행의 실상과 그 특징을 논의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로 한다.

위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부분은 남선비와 여산부인, 그리고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중심인물이다. 부부가 일곱 아들을 두었으나 가난에 남선비가 오동나라로 무곡장사를 나갔다가 그곳에서 ‘노일’을 만나 모든 것을 잃은 뒤 그녀와 같이 살게 된다. 그 후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찾으러 나섰던 여산부인은 오동나라에 들렀다가 간신히 남편을 만나지만, ‘노일’의 꾀임에 넘어가 목욕하다가 살해된다. ‘노일’은 남선비를 속여 본부인 행세를 하고 그의 고향으로 함께 돌아온다. (나)부분은 일곱 형제와 ‘노일’이 서사의 중심에 선다. 특히 막내 녹디생인은 형들과 달리 부모를 맞이할 때부터 ‘노일’이 어머니가 아님을 알아본다. ‘노일’의 여러 행동에서 어머니와 다름을 확인한 형제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자, ‘노일’은 저들을 죽일 궁리 끝에 꾀병을 앓고 남선비를 속여 거짓 문복장이가 되어 일곱 아들의 간을 내어먹이게 한다. 아들을 죽이려는 부친을 대신하여 막내가 형들의 간을 내어오겠다고 자원한 뒤, 산속에서 죽은 모친의 지시로 산뉘지의 간을 내게 되고, 이것을 ‘노일’에게 갖다 준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몰래 자리에 숨기게 되고, 이 일을 막내와 형제들에게 들키자 그녀는 측간으로 도망하여 자살하고, 남선비도 도망하다 정낭에 걸려 죽는다. (다)부분은 형제가 죽은 모친을 찾아 살려내는 이야기와, 결말로서 각 인물들의 신직 좌정 사실이 들어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가)에는 부부 이야기와 처첩간의 갈등담으로, (나)에는 전실 자식과 악모(惡母; 악첩이며 악모)의 갈등담으로,<sup>9)</sup> (다)에는 죽은 모친의 회생담과 신격 좌정담으로 짜여져 있다. 육지본 <칠성풀이>에는 (가)의 ‘처첩 갈등담’이 나오지 않으며 악인 여성도 전실이 죽은 뒤 재혼한 계모로 설정되어 있고, (다)의 ‘죽은 모친 회생담’은 호남지역 채록본의 일부(부안 줄포의 성씨녀본)에만 나올 뿐<sup>10)</sup> 거의 빠져 있어서 제주도본 <문전본풀이>와 다르다. 이 때문에 <칠성풀이>는 ‘계모와 전실 자식의 갈등’이 뚜렷하게 부각된다.

그런데 (가)와 (나)의 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은 ‘노일’이다. (가)에서는 여산부인을 죽였고, (나)에서는 일곱 형제들을 없애려고 하였다. 남선비를 중심축으로 삼아, 그를 둘러싼 아내와 자식을 제거하거나 이를 피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아내와 자식은 서로 ‘모자관계’가 된다. 여기서 파괴된 것은 부부관계와 모자관계이고, 훼손 위기에 있는 것은 부자관계이다. 이때 그 위기를 막아낸 인물은 물론 막내인 녹디생인이다. 그는 피와 지혜로 ‘노일’의 음모를 분쇄한다. 문제는 훼손될 위기의 부자관계는 끝내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결말에서 궁극적으로 복원한 것은 ‘부자관계’가 아니고, ‘모자관계’뿐이다. 어머니와 자식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인데, 이때의 어머니는 이미 죽은 존재

9) (가)와 (나) 부분을 두고, 이수자는 ‘처첩 갈등 및 전실 자식과 계모와의 갈등’으로 이해하였고, 장유정은 ‘남편을 둘러싼 처와 첩의 경쟁에다 분처 자식과 계모의 경쟁’이라고 하였다. 이수자, 앞의 논문 247면; 장유정,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도 가족제도의 한 특징」, 『구비문학연구』 제14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2.6, 317면. ‘노일’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에 거론한다.

10) <칠성풀이>(1), 성씨녀 구연본, 임석재, 『줄포무악』, 문화재관리국, 1970, 73~94면. 형제가 세 개의 꽃으로 죽은 모친을 살린다. 그러나 꽃을 얻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이밖에도 군산의 김옥순본(대계 5-4(군산), 박순호, 정문연, 1984, 375~395면), 전주의 최문순본(최길성, 『한국무속지』 1, 아세아문화사, 1992, 71~84면. <칠성풀이>에도 연당에 빠져 죽은 모친 매화부인을 환생초로 살리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두 자료에는 서두에 모친이 한번에 아들 일곱을 낳아서 남편인 칠성님에게 내쫓길 뿐, 그후로 죽었다는 언급이 없다.

이다. 그러나 아들들은 모친이 살해된 곳까지 찾아가 그녀를 되살려낸다. 일반적인 가족관계는 ‘부부(부모)와 그의 자식’이 중심을 이루지만, 이 신화에는 아버지가 빠진 채 ‘어머니와 자식’의 온전한 관계만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일상적인 가족관계와 다른, 제주도만의 특징으로 보여지거니와,<sup>11)</sup> 이는 제주도의 가족을 ‘여자(어머니) 중심의 독립형 핵가족’이라 한 점<sup>12)</sup>을 상기할 때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신화에서 보여준 ‘모자관계의 회복’은 이야기 서두에 설정된 ‘원래의 가족 모습’ 자체는 아니어서, 그야말로 온전하고 완전한 ‘가정의 완성’ 내지는 ‘가족의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은 결말에 나오는 자식들, 부모, 그리고 ‘노일’이 집안에 신직을 차지하여 좌정함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이다.<sup>13)</sup>

### 3. 악인형 여성의 실상과 그 전형성 모색

앞 장에서 <문전>은 <부부 이야기와 처첩간의 갈등담>과 <전실 자식과 악모(惡母)의 갈등담>, 그리고 <죽은 모친의 희생담과 신직 좌정담>의 세 부분으로 짜여져 있으며, 앞의 두 부분의 사건의 핵심에는 ‘노일’이 자리하면서 남선비라는 한 남성과 관련된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특히 막내아들이 그녀의 음모에 대적하여 훼손될 위기의 가족관계를 일정 부분 복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만큼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두 인물의 중요성이 큼을 지

11) 장유정, 앞의 논문, 324면.

12) 이광규,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탐라문화』, 1984, 65면. 김혜숙·김행신, 『가족구조와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제주도 민가를 중심으로』, 『논문집』 제33집(인문·사회과학편), 제주대학교, 1991, 392면 재인용.

13) 참고로 <제석본풀이>를 보면, 세 아들(혹은 어머니와 함께)이 아버지를 찾아가 부부 및 부자관계를 완성하고, 이어서 아버지로부터 각각 신직을 부여받아 좌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문전본풀이>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적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일’의 행위가 모든 사건을 좌우하며, 그 자체가 악하다는 점이다. 이 장에서는 그녀의 성격을 먼저 살피고, 이어서 그 악행의 양상을 살핀 뒤 악인으로서 여성상이 어떠한지 밝히기로 한다.

### 1)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성격

먼저, ‘노일’은 첩, 본부인(본처), 그리고 계모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의 인물이다.<sup>14)</sup> 남선비가 무곡장사를 하려고 오동고을에 오자 그녀는 그를 피어 자기집으로 데려가거나, 주막에서 쫓겨난 그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를 초막에 두고 겨죽을 대접하며 함께 산다. 자료(1)에서 남선비가 그녀를 첩으로 삼았다 하거나, (2)에서도 첩살림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남선비의 첩 노릇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남편을 찾아 초막에 온 여산부인을 보고 그녀는 ‘형님’이라고 부르며 큰부인 대접을 한다. 제주도에서는 처와 첩 간의 지위의 차이가 육지처럼 크지 않아서, 서로 큰부인과 작은부인, 혹은 대부인과 소부인으로 부른다고 한다.<sup>15)</sup>

그런데 그녀가 여산부인을 죽인 뒤 그의 옷을 입고 큰부인 행세를

14) 적어도 ‘노일’이 가지는 처와 첩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은 여러 연구자들도 지적하고 있다. 이수자는 ‘처첩 갈등 및 전실 자식과 계모와의 갈등’이 나타난다 하였고(이수자, 『제주도 큰굿 내의 신화에 나타난 가족 구성상의 특징과 의의』, 247면), 장유정도 ‘남편을 둘러싼 처와 첩의 경쟁에다 본처의 자식과 계모의 경쟁관계가 중첩된다 하였으며(장유정, 앞의 논문, 317면), 김재용 역시 이 신화가 ‘처와 첩(혹은 계모)간의 다툼’을 다룬다 하면서도 이를 ‘처첩갈등담’으로 보았다(김재용, 앞의 논문, 94면). 반면에 김혜숙은 ‘노일’을 첩으로 간주하고 있다(김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혼인 연구』, 『논문집』 제36집(인문사회편), 제주대학교, 1993, 187면).

15) 김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혼인 연구』, 185~186면. <토산 일뤼당본풀이>나 <제주시 금당본향당본풀이>, <성산읍 수산리본향당본풀이> 등에서 처첩 사이에 그러한 호칭이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189면에서는 제주도에서는 육지의 남성 특권층에 의한 축첩과 다르고, 첩살이도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하며 남선비에게 ‘노일제대귀일의 딸 행실이 꽤 씩하여 죽었다’고 하자, 남선비는 “하하, 그년 잘 죽었저. 나 원수 가꿨구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sup>16)</sup>라고 한다. 눈먼 그는 ‘노일’을 본부인(본처)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눈이 멀었지만 본부인과 첩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남선비의 어리석음을 나무랄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는 ‘노일’을 진짜 본부인으로 알고 함께 고향에 간다. 그가 ‘노일’을 진짜 부인으로 알고 있는 것은, ‘노일’이 죽을 병을 거짓으로 앓자 그가 문복 때에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한다는 말을 끝이듣고, 실제로 아들들을 죽이려 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물론 ‘한 배에 자식을 둘(혹은 셋)씩 네 번(혹은 세 번)을 낳으면 자식이 여덟(혹은 아홉)이 될 것’이라는 그녀의 다짐과 입발림 소리에 속은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아내를 살리기 위해 ‘자식은 또 낳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형제들의 간을 내려고 하였을 것이다. 남선비의 이러한 생각 때문에 아들들은 그녀를 악모(惡母)라 부르고 있다[자료(4), 336면].

그러나 일곱 형제에게 있어서 그녀는 계모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기들의 없어진 ‘진짜 어머니’를 대신하여 집안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모는 전처가 죽었거나 소박맞아 내쫓긴 뒤 집에 들어온 후실을 말한다. 그들에게는 ‘노일’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전>에서는 남선비가 ‘노일’의 말만 믿고 그녀를 본부인인 여산부인으로 알고 고향에 돌아왔다는 점에서 남선비 입장에서 보면 그녀는 계모는 아니다. 이 점이 ‘노일’의 성격을 하나로 단정짓기 어렵게 한다. 반면에 육지의 호남본 <칠성풀이>를 보면, 전실인 매화부인이 한 배에 아들 일곱을 낳자 칠성님은 ‘짐승 같다’며 그녀를 소박한다. 그리고 이어서 후실로 옥녀부인을 맞이한다. 따라서 <칠성풀이>에는 계모로서 옥녀부인의 성격이 분명히

16)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266면.

드러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모형 가정소설의 대부분에는 계모가 전설 소생의 자식을 구박하거나 죽이려고 한다. <문전>에서 ‘노일’이 일곱 형제를 죽이려고 한 일은 바로 이러한 계모형 가정소설에서 계모들이 보이는 악행과 같다. 이 때문에 일곱 형제에 대한 ‘노일’의 살해음모만을 주목하면, 자연히 <문전>의 핵심적 사건은 계모담이 될 터이다.<sup>17)</sup>

다음으로, ‘노일’은 배를 타고 제주도 본토에 들어온 외래인이자 외래신이면서, 집안의 측간신(변소신)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은 여산부인과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여산부인은 제주도 본토에 살며 집안의 조왕신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일’은 오동나라 출신인데, 남선비와 산 언덕 넘어 수수깡으로 만든 초막에 살면서 겨죽을 먹고 지낸다. 이로 보아 그녀는 산촌에 살면서 자연력에 의존한 채취경제 내지는 문화단계가 낮은 음식문화를 영위하는 집단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여산부인은 초막에서 남편을 만난 뒤 흰쌀밥을 지어올릴 정도로 높은 농경문화를 영위하고 있으며, 일곱 아들을 두는 생산력이 풍부한 여성이기도 하다.<sup>18)</sup> 그리고 신격으로서, 두 여성이 보여주는 조왕신과 측간신의 면모는 이미 기존의 논고<sup>19)</sup>에서 충분히 언급되었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부연하고 싶은 것은 두 여성이 가지는 무속사제자로서 능력 문제이다. 여산

17) 실제로 현용준은 이 신화가 계모담의 갈등을 보인다 했고(현용준, 「문전본풀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434면), 서대석도 이 신화를 육지본과 함께 다루면서 ‘계모형 서사문학’으로 처리하였으며(서대석, 「칠성풀이」,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정주혜도 이 신화를 기본적으로 계모담으로 보았다(정주혜,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대비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8).

18)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김재용이 언급한 바가 있다. 김재용, 앞의 논문, 94면 참조. 그러나 ‘노일’을 젊고 날렵한 도래신격으로, 여산부인을 늙고 힘 없는 기존신격으로 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19) 이수자, 앞의 논문; 장유정, 앞의 논문; 김재용, 위의 논문; 이지영, 「무속신화에 나타난 구약모티프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부인은 삼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해변에 가서 끈을 빗에 매어 바다 물속에 넣으면서 ‘죽었으면 의복이나 머리카락이 걸려 올라와다오’ 하며 빌었으며,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자 남편이 죽지 않을 줄 짐작한다(자료 3, 6, 7). 이러한 그녀의 행위는 무당이 진오귀굿을 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또한 ‘노일’이 남선비와 함께 남선고을에 돌아오자 일곱 형제들이 다리를 놓는데, 막내가 유독 칼선다리를 놓는 사건도 주목할 만하다. 형들이 칼선다리를 놓는 이유를 막내에게 묻자, 막내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서 그런다고 했다. 만일 어머니라면 그것을 쉽게 밟고 지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무당이 칼날을 위로 하고 그 위로 걷는 것은 제주도의 무의식과 관련된다고 한다.<sup>20)</sup> 참고로 강을생본 <세경본풀이>를 보면, 자청비가 문도령의 부모 앞에서 ‘오십 자 쉼 구덩이에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칼선다리를 세우고 통과해야 하는’ 며느리 자격시험을 볼 때, 하늘에 빌어 비를 내리게 하여 숯불을 끄고 칼을 식힌 뒤 칼날 위를 지나간다. 그리고 그녀는 문선왕으로부터 세경신을 부여받는다. 결국 칼선다리 건너기는 무속사제자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sup>21)</sup> ‘노일’이 이 일에 능숙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가 여산부인과 달리 사제자의 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해변에서 빗으로 혼령을 건지는 행위와 칼선다리 건너기 등에서 보듯이, 여산부인은 무속사제자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런 사정으로 보아 여산부인은 ‘노일’보다 생활경제나 문화적 수준, 무속적 사제자로서 능력면에서 두루 뛰어났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두 여신의 대결이 있다면 당연히 여산부인이 이겨야 할 것이다. <문전>과 여러모로 비교가 되는 아이누 신화인 <카무이 후치 야이 유카르>를 보아도, 본부인인 불의 여신은 남편이 첩인 물의 여신에게 혹하여 빠져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집에 찾아가는데, 이때 둘

20)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42~43면.

21)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301~304면.



사이의 싸움에서 불의 신이 쉽게 이기고 있다.<sup>22)</sup> 그런데도 <문전>에서 여산부인은 ‘노일’이 사는 곳으로 갔다가 비참하게 살해되고 만다. 여산부인이 ‘노일’과의 대결에서 패한 셈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문전>은 아이누의 신화에 비해 여러 삽화가 개입하여 이야기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특히 막내아들의 활약상이 강조되면서 여신의 성격이 희미해진 탓이 아닌가 추정할 바가 있다.<sup>23)</sup> 여기에 하나더 보태자면, ‘노일’의 ‘속임수와 꾀’라는 인위적인 지혜가 자연적인 능력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반영된 데도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

## 2)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악행의 실상

앞서 ‘노일’의 행위가 모든 사건을 좌우하며 그 행위 자체가 악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그녀의 구체적인 행위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그녀와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그의 행동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한다.

1. 남선비를 꾀어 노름을 하고 그의 돈을 탕진시켰으며, 초막에 함께 살면서 겨죽으로 연명하게 하여 결국 그의 눈을 멀게 만든다.
2. 오랫동안 오지 않던 남편을 찾으러 오동나라에 온 여산부인을 만나자 아양을 떨며 큰부인 대접을 하는 척하였으며, 여산부인을 목욕하자고 꾀어내어 연못에 밀어뜨려 살해한다.
3.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돌아와 큰부인 행세를 하면서 남선비에게 행실이 나쁜 ‘노일’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그를 믿게 하였다.
4. 큰부인이 되어 남선비를 따라 고향에 돌아온 뒤 집안을 차지한다.
5. 전실의 일곱 아들이 모친을 그리워하자, 이들을 없애려고 거짓으

22) <문전>과 아이누 신화 사이의 비교 연구는 장유정, 앞의 논문; 장유정, 『제주도 <문전본풀이>와 아이누의 <카무이 후치 아이유카르>의 비교 고찰』, 『국문학연구』 제7호, 국문학회, 2002 참조 바람.

23) 이지영, 앞의 논문, 441면.

로 앓은 채한다. 그리하여 남선비를 속여 자신이 점쟁이로 가장한 뒤 ‘이들들의 간을 내어야 병이 낫는다’고 속인다.

6. 막내가 가져다 준 짐승의 간을 먹은 채하고, 입술에 피를 바르며, 이를 자리에 숨겨둔다.
7. 죄악이 발각되자 측간으로 도망하여 자살하였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녀의 시체를 분리하니, 거기에서 여러 생물이 생겨났다. 그 뒤 측간신으로 좌정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첫째, 그녀는 남선비의 온전한 가정 질서와 평화를 파괴한다. 앞서 잠깐 살폈듯이, 그녀는 남선비라는 한 남성과 관련된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 여산부인을 죽임으로써 온전한 부부관계를 훼손하였고, 일곱 형제를 죽이려함으로써 부자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였다. 물론 그들을 제거하려고 한 이유는, 그녀가 남선비와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데에 그들이 불필요한 존재 내지는 방해자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그녀는 남선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의 삶을 파괴한다. 남선비는 일곱 아들과 아내를 둔 가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물론 아내의 권유였지만) 배를 타고 다른 땅으로 가서 쌀을 사거나 장사를 하려고 하였다. 그런 그를 ‘노일’은 장기와 노름 등을 하게 하여, 가지고 있던 돈뿐만 아니라 타고 왔던 배까지 다 잃게 만든다. 그는 결국 눈까지 먼 채 그녀와 초막에서 살면서 ‘겨죽단지를 옆에 차고 개나 쫓으면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만다. 게다가 남선비는 그녀의 술책에 빠져 일곱 아들을 죽이려는 잘못된 행동을 한다. 우리 설화에서는 ‘부모의 효’를 위하여 자식을 버리거나 땅에 묻는 일(<손순매아>에서처럼)이 벌어지나, 이 일은 아내의 ‘거짓 피병’을 고치기 위하여 일곱 아들이나 죽일 정도여서 문제가 된다. 결말에서 남선비가 보여준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그동안 그가 ‘노일’을 만나 비정상적인 상태로 변했다가 비로소 깨닫고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곧, 그는 ‘노

일'의 죄악이 밝혀지자 '속았으며 도망하고'(자료 4), '부끄러워 집을 나가고'(자료 5), '겉이 나 도망한다'(자료 6). 그밖의 자료에는 자식들의 위협에 '노일'이 도망할 때 함께 달아난다. 이 때문에 자식들은 아버지가 '죄가 없다'면서 신격으로 모신다.

셋째, 그녀는 인륜을 망각하여 본처를 살해하였고 또 전설 소생의 일곱 아들마저 죽이려고 한다. 그녀의 악행의 핵심은 인명살해에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처와 첩의 갈등은 있을 수 있다. 여산부인은 남편이 초막에서 겨죽을 겨우 먹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또 남편이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는 안타까운 일을 겪는다. 그러나 '노일'이 남편을 삼년간 그렇게 소홀히 대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그녀가 자기를 만나면서 '형님' 하며 애교를 피우자 그녀에 대해 어떠한 미움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여산부인은 그녀를 남편의 작은부인(첩)으로 인정하고 인간적으로 대한다. 실제로 '노일'이 여산부인에게 함께 고향으로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부인은 쉽게 허락한다. 그러나 '노일'은 여산부인을 살해한다. 김혜숙은 제주도의 당신화에서 처와 첩은 갈등을 드러내기보다는 서로 돕는 일이 잦다고 하면서,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간특한 첩'인 '노일'은 제주도의 여성이 아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24)</sup>

'노일'은 본처를 죽이는 데 머무르지 않고, 계모가 되어 전설의 일곱 형제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막내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악행을 막아내는 일은 먼저 이웃집 할머니인 청태산 마귀할망과 산속에서 만난 산신 혹은 백발노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산속

24) 김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혼인 연구」, 『논문집』 제36집(인문사회편), 제주대학교, 1993, 188면. 물론 이와 달리 그녀를 제주도의 전형적인 여신상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가령, 김정숙은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제주도 여성의 원형상을 셋으로 추출하면서, '노일'은 관계지향적 여신상에 속하며 그 가운데 <사리사욕형>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에서 형제들은 잠이 들었다가 꿈에서 죽은 모친을 만난다. 그녀는 산 돼지 일곱 마리가 내려갈 것이고 이를 잡아 간을 내도록 지시한다. 이와 같이 악인 ‘노일’에 대하여 여러 신격들이 형제를 돕고 있어서, 악인의 패배는 필연적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신화에는 철저하게 악인에 대한 징치의식이 돋보인다. 이 신화 문면에서 등장인물들은 이를 ‘원수갚기’라고 말한다. 남선비는 ‘노일’이 여산부인을 죽이고 부인의 옷을 입은 뒤 거짓으로 ‘행실이 나쁜 노일저대를 죽였다’고 하자, “하하, 그년 잘 죽였다. 내 원수를 갚았구나.”[자료 (2), 267면] 라며 통쾌해 한다. 자기를 파탄에 빠뜨린 노일저대를 원수라고 한 것이다. 또한 ‘노일’의 죄악이 들통나자 막내는 지붕에 올라가서 “악모을 칠형제가 원수를 갇아야 맡개습내다”[자료 (4), 336면]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친다. 어머니를 죽이고 형제들을 죽이려 한 악모인 ‘노일’에 대해 원수를 갇겠다고 공포(公布)하는 것이다. 악인 ‘노일’의 징치는 죽은 그녀의 시체를 형제가 분리하여 날리자 여러 생물이 생겨난 데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시체화생형(屍體化生型) 악인의 징치는 제주도 박만보본 <삼공본풀이>에서 막내동생(셋째)을 시기한 두 언니가 막내의 저주로 청지네와 버섯으로 각각 변한 일<sup>25)</sup>과도 상통한다. 그밖에 악인을 결말에서 죽이는 경우는 육지본 <칠성풀이>에서 하느님(호남본)·육황(관북본)이 옥녀부인에게 벌을 내리는 것 외에도, 제주도 안사인본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아미를 박대하던 악인 ‘장자’와 그 가족들이 모두 죽은 일<sup>26)</sup> 역시 안사인본 <초공본풀이>에서 ‘젓부기 삼형제’의 과거급제를 가로막고 또 그의 모친 ‘노가다 단풍 아기씨’를 삼천제석궁에 가두어 죽인 ‘삼천 선비’를 삼형제가 칼로 목을 잘라 죽인 일<sup>27)</sup> 등에서도 확인된다.

25) 현용준, 『제주도신화』, 서문당, 1976, 80~81면.

26) 위의 책, 74~75면.

27) 위의 책, 55~64면.

### 3)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악인형 여성상

<문전> 속의 여산부인은 대개 제주도 여인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남편이 장사하러 집을 나가자 혼자서 일곱 아들을 키우는 노동 경제력을 갖춘 독립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악인에게도 순진한 인정을 베푸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신화를 통해 볼 때, 제주도 여성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면 단연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를 들곤 한다. 좌혜경은 자청비의 여성상으로서 풍요신과 생산신적 면모, 남성과 여성의 중간자적 역할상, 그리고 남녀 사랑에도 능동적이며 당당한 적극적 여성상을 추출한 바가 있다.<sup>28)</sup> 이러한 여성 영웅적이며 긍정적인 여성상 외에도 제주도에 전승하는 무속신화인 <문전>에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라는 타락하고 문제적인 악인형 여성상이 등장한다. 물론 ‘노일’은 오로지 제주도에만 전승되는 신화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육지의 <칠성풀이>에도 그녀와 비슷한 행위를 보여주는 계모 옥녀부인(호남본)이 나온다. 따라서 ‘노일’의 모습을 가지고 제주도만의 특징적인 여성상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여기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악인형 여성상을 제주도만이 아닌 우리 신화 속의 일반적인 것으로 치환하면서, 그 여성상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몇 가지 항목을 통해 밝히기로 한다.

첫째, 그녀는 바둑 장기에 능하고 노름을 잘하며, 놀고 춤출 줄 아는 유희형 여성이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것은 자료 (2), (3), (7)이다. 남선비는 ‘노일’과 잡기(雜技)를 하다가 가지고 있던 돈과 배를 잃거나 빼앗기고, 심지어 의복과 갓까지 잃는다. 그러나 그러한 언급이 없는 자료들도 있다. 자료 (1)에는 남선비가 여산부인에게 ‘노일 저대의 피임에 빠져 금은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자료 (6)에는 여산부인이 오동나라에 가서 기장밭에서 새를 쫓는 아이의 노래를 들

28) 좌혜경,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호, 민속학회, 1998.

을 때 그 노래 속에 ‘노일저대 피임에 들어서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노일’의 술책과 피임에 빠져 남선비는 돈을 다 잃은 듯하다. 특이하게 자료 (4)에는 남선비가 먼저 주막에 들렀다가 돈을 날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 (5)에는 그가 ‘노일’의 소홀한 대접을 잘 받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에 빠져 돈을 다 잃고 그 여성과 살게 되는 남선비와 같은 이야기는 고전소설 <이춘풍전>에서 춘풍이 평양 기생 추월에게 혹하여 돈을 날린 뒤 그녀의 하인이 된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춘풍이는 천하의 난봉꾼이지만 남선비는 그런 위인이 아니다.

게다가 ‘노일’은 한량들과 놀면서 춤을 출 줄도 안다. 자료 (6)의 신명아본을 보면, 여산부인은 남선비를 찾으러 산 고개를 넘다가 어떤 여자를 만난다.

○ 가단(가다가) 보난(보니까) 일천 할량들이 노는디, 어떤 예즈(여자)가 대홍대단 훔단지매(훔안치마) 구실동이(구슬동이) 저고리에 늦인낭제(늦은낭자) 비뜰낭제(비뜰낭자) 늦익마직 차아놓고 왼 손엔 은가락지 느단손엔(오른손에는) 늦가락지 호고 할량들광 웃임재작(웃음놀이) 호명(하면서) 오곰춤(오곰춤)을 추엄구나(추고 있구나)[113면]

그녀는 여러 한량들과 화려한 옷을 입고 손에는 가락지를 차고 웃음 놀이하면서 오곰춤을 추고 있다. 이때 그녀는 춤과 노래까지 곁들였을 것이다. 그녀가 바로 ‘노일’임은 이후 본문을 보면 쉽게 확인된다.

○ 남선비 츄상(찾아서) 올 때 본 오곰춤 추단(추던) 예즈가 머리 허붕치고(헐으러지고 ; 흐트러지고) 모지락 치매에(닿아서 떨어진 치매에) 치매통엔(치마자락에는) 보미(보너) 혼되 놓완(놓아서) 흥글흥글(흔들흔들) 흥글아(흔들며) 들어오명(들어오면서)[114면]

여산부인이 남선비를 만나 쌀밥을 대접하고 난 뒤에 한 여자가 초막을 들어오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녀는 앞서 고개에서 만났던 여자이다. 그녀는 한량들과 노는 바람에 머리가 흐트러지고 치마까지 닳아질 정도이며, 몸은 흔들거리며 들어온다. 그야말로 흥에 겨운 모습이다. 이로 보아 ‘노일’은 생산과는 무관한 유희형 여성이었던 듯하다.

둘째, 그녀는 남성에게 아양을 떨고 유혹할 줄 알며 애정에도 적극적인 여성이다. 그러면서 질투가 많고, 순간적으로 좋고 나쁜 감정을 바꿀 줄 아는 눈치 빠른 여성이다. 남선비가 배를 타고 오동나라에 오자, 그녀는 “엇인 언강(없는 아양) 스뭇 내명(사뭇 내면서)”<sup>29)</sup> 그에게 가서 노름하자며 꺾어낸다. 여러 이본에 두루 나타나는 ‘노일의 뽀’이란 바로 이러한 아양과 애교를 통한 여성의 유혹이 아닐까 한다. 그녀는 남선비와 동거하며 첩이 된다. 그로부터 돈을 다 빼앗아낼 생각도 있어서이겠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그녀의 유희적 성격과 함께 남성과의 애정에도 자유롭고 적극적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서도 남선비에게는 인정이 없다. 그녀는 그에게 겨죽만을 주면서도 ‘잠진(기름진) 겨’는 자기가 먹고 ‘굶은 겨’는 그에게 준다.<sup>30)</sup> 한편, 그녀는 질투도 많다. 그녀가 초막에 돌아와서 어떤 여자가 있는 것을 보자 대뜸 화를 낸다.

○ 이 놈 저 놈 죽일 놈아, 난 어디 강(가서) 죽듯 살듯(죽을 듯 살 듯) 체 흔 솔박(도 빌어당겨 한 되라도 빌어다가) 죽을 썩(썩어) 배 불리 백여 노민(먹여 놓으니) 질 넘어가는 년(길 넘어가는 여자를) 뺏혀놓고(데려다 놓고) 만단정화만 일럼구나(이르고 있구나)<sup>31)</sup>

29)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260면.

30) 그러나 <이춘풍전>에서 기생 추월이 돈이 다 떨어진 춘풍을 박대하여 하인으로 삼지만, 그래도 ‘노일’은 돈이 없는 남선비를 먹여 살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추월이보다 더 그녀가 인간적이지 않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생 추월과 비교할 때의 일이다.

31) 위의 책, 264면.

○ 이놈의 아들 중놈, 어땡(어떻게) ㄹ랑(말해서) 괴양 ㄹ르리(급게 말 할까) 지 벌어다명(모처럼? 벌어다가는) 멧골이 짓헛명(못하는 짓하면 서) 맥여놓난(먹여놓으니까) 들어 앓아두서 질칸 간나을(길 가는 여자를) 머쳐놓고(맞아놓고)[자료 (6) 신명어본, 115면]

초막에 있던 여자는 바로 여산부인이지만, ‘노일’은 처음에는 그녀를 몰라보았던지 남선비에게 ‘아까 자기가 길에서 만난 여자를 벌써 집에 데려와 수작부린다’고 욕을 하고 있다. 그녀는 남선비를 ‘죽일 놈아’, ‘이놈의 아들 중놈’이라 할 정도로 표독스럽게 몰아친다. 지나칠 정도로 감정을 직설적으로 뽐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 역시 바로 이전에 길에서 한량들과 춤추며 놀았던 처지가 아니었던가! 그녀는 아마도 돈이 없어서 오갈 데 없고 눈까지 먼 남선비가, 함께 살아주는 자기에겐 늘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남선비로부터 ‘여산고를 큰부인이 나를 찾아 왔구나’는 말을 듣자, 그 화난 태도는 돌변한다. 그녀는 곧바로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이구, 설운 성님(형님)아” 하며 여산부인을 큰부인(본처)으로 깎듯이 대접한다. 이러한 말투와 태도는 그야말로 표변(豹變)에 가깝다. 자료 (7)에서는 “원체 이년이 눈치가 좋은 년”(125면)이라 한 뒤, 무릎을 꿇고 “형님 몰라봤수다. 저를 살려주소” 라고 말하는 ‘노일’의 행동을 구연하고 있다. 자료 (4)에서 그녀는 남선비와 여산부인의 대화를 엿듣고는 ‘잘못했소’ 라고 사과하고 있으며, 남선비가 그녀와 같이 고향에 갈 수 없다고 하자 “저도 낭군님을 삼년간 사랑하여습내다. 가치 가서 부역한님을 못하면 굴목한님이라도 하개습내다”(313~314면) 라고 말한다. 이처럼 그녀는 감정에 솔직하며 애교와 아양으로 무장하였으면서도, 질투가 많고 상황에 따라 감정을 감추는 데 능숙한 여성이다.

셋째, 그녀는 가정살림하고는 거리가 먼 여성이다. 그녀는 우선 정상적으로 생산적인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 먹을거리도 다른 곳에서 얻



어오거나, 품을 팔아서 겨우 겨 한 되를 마련한다. 그러면서 밥을 짓는 일에도 무심하다. 여산부인이 초막에 와서 솥을 열어보니, ‘겨죽이 바짝 눌러 있었다.’ 그동안 죽을 거의 안 끓여먹었거나, 솥을 씻지 않은 채 죽을 쑤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여산부인은 그런 솥을 두세 번 정성껏 닦아 흰쌀로 저녁밥을 지어 남선비를 대접한다. 이러한 밥을 대한 그는 비로소 ‘옛날에는 이런 밥을 먹었노라’고 후회한다.

여산부인이 밥 짓고 가족들에게 밥상을 차리는 일에 능숙하나 ‘노일’이 그 반대라는 사실은, ‘노일’이 남선비와 함께 남선골로 와서 살림을 할 때 여실히 드러난다. 그녀는 밥을 지을 줄을 모르며, 가족들의 밥상이 누구 것인지 구별하지 못한다. 또한 쌀이 있는 곳을 모르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그녀가 외지(外地)에서 건너와 남선비의 집안 일에 무지한 탓이 더 크다. 그러나 오동나라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일솜씨와 가정일에 대한 관심의 정도로 볼 때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크다.

넷째, 그녀는 피를 잘 쓰고 속임수에 능하며 모든 일에 용의주도한 여성이다. 이러한 일은 여산부인, 남선비, 그리고 일곱 형제(특히 막내) 등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차례대로 이루어진다. 먼저, 그녀는 여산부인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월 더위에 우리를 찾아온 것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시원하게 목욕합시다” 라고 안심시킨 뒤, 부인을 주천강 연못으로 유인한다.[자료 (2), 안사인본] 그리고 ‘형님에게 먼저 등을 밀어주어야 한다’면서 부인을 엎드리게 한 뒤, 연못에 밀어뜨린다. 이러한 감언이설과 속임수 때문에 여산부인은 쉽게 안심하고 그녀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녀의 속임수는 남선비에게도 계속된다. 그녀는 여산부인을 죽인 뒤 부인의 옷을 바꿔 입고 본부인 행세를 하면서, ‘행실이 나쁜 ‘노일’을 죽였다’고 거짓말한다. 눈이 먼 남선비는 이를 알지 못하고 ‘노일’을 여산부인으로 진짜 본부인으로 안다. 남선비의 집에 들어간 뒤에도 그녀는 일곱 형제를 죽이려고 거짓으로 배가 아프다고 뒹군다. 그

리고 남편에게 문복하기를 권한 뒤, 자기가 점장이 행세를 하면서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먹어야 병이 낫는다’는 말을 한다. 자식을 죽이는 일이 워낙 큰일이라 생각했던지 그녀는 남선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점을 두 번이나 치게 한다.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여덟(혹은 아홉)이나 낳아줄 수 있다고까지 호언한다. 실로 용의주도한 모습이다. 그녀는 남선비보다 지름길을 택하여 먼저 정해진 곳에 가서 점장이 복장을 하고 점을 봐주는 태연함도 지닌 인물이다.

그녀의 속임수는 막내아들에게까지 미치나, 결국 실패하고 만다. 막내 늑디생인은 지혜가 많은 인물이다. 그는 ‘노일’이 진짜 어머니가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아버지가 형제들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도 침착하게 형들을 달랜 뒤, 아버지를 직접 집으로 찾아가 자신이 형들이 간을 내어오겠다면서 아버지의 칼을 얻어온다. 막내는 산돼지의 간을 여섯 형들의 간이라고 속여 ‘노일’에게 건넨다. 그러나 그녀 역시 그를 속이기 위하여 그를 방밖으로 나가게 한 뒤, 거짓으로 입술에 동물의 피를 묻히며 간을 먹은 채하다가 자리 속에 그것을 감춘다. 막내는 이 일을 미리 알고 창문을 통해 엿본다. ‘노일’이 속임수에서 한 수 뒤지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러한 막내의 지혜와 엿보기가 아니더라도 그녀는 이미 패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근본적으로 산돼지의 간과 사람의 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 어쩌면 그동안 자기가 써온 속임수들이 잘 들어맞은 탓에 그만 안심하고 만 자만심과 방심이 더 크게 작용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되었든 속임수가 들통 난 그녀는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측간으로 도망하여 목을 매어죽는다.

다섯째, 그녀는 본부인을 죽이고, 또 전실의 소생을 죽이려고 하는 냉혈적인 여성이다. 여산부인은 그녀를 남편의 작은부인(첩)으로 인정하고 인정을 베풀었으나, 그녀는 부인을 연못에 밀어 죽인다. 그녀가 부인을 죽인 이유는 신화 문맥에는 분명하지 않다. 남선비의 사랑을 독차지할 목적이 아닌지 의심할 만하나 확실하지 않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실의 일곱 형제를 죽이려고 한다. 자신이 직접 죽일 수 없어서 남편의 힘을 빌리는 꾀를 쓴다. 일종의 살인교사(殺人敎唆)이다. 막내가 산돼지의 간 여섯 개를 건네준 뒤 병이 다 나았는지 묻자, 그녀는 ‘나머지 하나 더 먹으면 병이 완전히 나올 수 있겠다’고 능청을 떠낸다. 하나의 간이란 바로 막내를 두고 한 말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아이까지 완전히 죽이겠다는 섬뜩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녀가 일곱 형제를 죽이려는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지는 않으나 이본들을 살펴보면 대강 윤곽이 드러난다. 그것은 ‘집안일을 못하면서 형제들에게 들통 난 것이 계속 부끄러워 심화병이 생겨서’이거나(자료 5),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를 찾으며 자기보고 썩덕공론하자(자료 6), 혹은 아이들이 그녀가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자(자료 7)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처럼 본부인을 살해하고 전실 소생을 죽이려는 그녀의 행위를 두고 처첩간 갈등을 위주로 하는 쟁총형 가정소설이나, 계모의 전실 소생에 대한 박대가 그려지는 계모형 가정소설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우선 고전소설에서 악녀(惡女)는 선천적으로 나쁜 성정 탓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당대의 사회제도와 가정 내부의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혐의가 짙다는 주장<sup>32)</sup>이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노일’이 본처를 죽인 일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선천적인 성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쟁총형 가정소설의 경우 주로 남편의 편애에 따른 소외의식에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노일’의 행위와는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전실 소생의 일곱 아들을 죽이려 한 일은 앞서 보았던 대로, 어느 정도 ‘노일’의 소외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형제들이 죽은 모친을 생각하고 그녀에 대해 썩덕공론하는 일은 그녀가 한 집안의 ‘계모(본부인 행세를 하지만)’로서 온전히 자리하기 힘들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

32) 한상현, 「고소설에 나타난 악녀의 실상-쟁총형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96.

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상이한 원인에서 생겨난 ‘노일’의 악행은 그녀가 지닌 ‘본부인, 첩, 계모’라는 복합적인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문전>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보이는 악인형 여상을 고전소설에서 정형화된 악녀의 이미지와 구별할 줄로 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 4. 결론

본고는 등장인물의 행위에 초점을 둔 <문전>에 대한 작품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학이나 주제적 가치, 구비문학으로서 구술적 특징, 신화적 성격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애초 출발부터 악인형 여성상의 추출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이에 대한 논의 부실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역사나 문학에서 악처는 없고, 악첩이나 악모가 있었다는 지적은<sup>33)</sup> <문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필자는 고전소설에 흔하게 발견되는 이러한 악첩, 악모의 모습을 무속신화의 하나인 <문전>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에서 찾고자 하였다. 늘 그랬듯이, 만일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보여주는 조왕신과 측간신의 측면에만 주목한다면, 이 신화가 전승집단을 통해 어찌하여 폭넓게 그리고 오래도록 전승되고 향유되는지 그 이유를 상당 부분 놓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하나의 신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두루 살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현대적인 각도와 안목으로 이해하는 일도 필요하다.

<문전본풀이>의 일곱 편 이본을 검토한 결과, 안사인본이 비교적 서사적 긴밀성이나 줄거리의 완성도가 높아보여서, 이 자료를 중심으

33) 장덕순, 「고대소설의 악녀들」,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일지사, 1973, 228면.

로 줄거리를 정리하였다. 주요 주인공들의 경우, 남선비는 이본마다 동일하게 나타나 여산부인의 이름은 조금씩 다르며, 악인형 인물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노일제대(혹은 저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 줄거리는 <처첩간의 갈등담>, <전실 소생과 악모(악첩이면서 악모)의 갈등담>, <죽은 모친의 회생담과 신격 좌정담>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적 특징은 육지본 <칠성풀이>에서 악인(옥녀부인)이 죽은 전실에 이어 재혼한 후실(곧 계모)로 설정되어 ‘계모와 전실 소생의 갈등’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죽은 모친의 회생담이 일부 지역(호남)의 몇 편의 자료에만 나올 뿐 그밖의 자료에는 거의 누락되어 있다는 점과는 많이 달랐다. <문전>에서 사건의 핵심적 역할은 ‘노일’이 담당하거나, 그녀는 남선비를 둘러싼 가족관계를 훼손하고 있다. 그의 아내(본처)를 살해하고, 또 남아 있던 전실 소생의 일곱 아들을 죽이려 한다. 그러나 그녀의 음모에 맞서서 막내아들이 활약하는데, 그는 자신의 지혜와 여러 신격들의 도움으로 그녀의 형제 살해 음모를 막아낸다.

악인형 여성인 ‘노일’의 성격은 여러모로 본처인 여산부인과 대조적이며 대립적이다. 그녀는 우선 ‘첩, 본부인(본처), 계모’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띤 인물이다. 오동나라에서 남선비의 첩이 되고, 여산부인을 죽인 뒤 본부인 행세를 하였으며, 집에서는 계모로서 전실 소생을 죽이려 한다. 또한 그녀는 외래인이면서 외래인이면서, 집안의 측간신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격은 여산부인과 사뭇 대조적인데, ‘노일’은 자연력에 의존한 채취경제 내지는 문화단계가 낮은 음식문화를 영위하는 집단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여산부인은 높은 농경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노일’보다 무속사제자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노일’의 악행의 실상을 일곱 단락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그녀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악하여 1) 남선비의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파

괴하고, 2) 남선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의 삶을 파괴하며, 3) 본처를 살해하고 전실 소생의 일곱 아들을 죽이려 한다. 이러한 그녀의 악행에 대해 다른 주인공들은 복수의지를 보이며, 끝내 그녀는 신체가 분리되어 생물로 화생(化生)한다. 이러한 악인에 대한 정치의식은 제주도 무속신화에 두루 발견된다.

‘노일’의 행위를 통해 악인형 여성상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그녀는 유흥형 여성이다. 그녀는 바둑 장기에 능하고 노름을 잘하며, 놀고 춤을 잘 춘다. 이로부터 그녀는 생산과 무관한 인물이다. 둘째, 그녀는 남성에게 유혹하며 애정에도 적극적인데다, 질투가 많고 감정에 솔직하며 눈치가 빠른 여성이다. 이는 감정과 주관에 충실한 개성적인 여성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그녀는 직설적인 말투를 뱉을 정도로 감정을 잘 드러내는데,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 눈치가 빨라 감정이 돌변한다. 셋째, 그녀는 가정살림을 잘 할 줄 모르는 여성이다. 밥을 할 줄 모르고 살림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이 점은 특히 여산부인과 대조적이다. 넷째, 그녀는 거짓말, 꾀, 그리고 속임수에 능하고 모든 일에 용의주도한 계산형 여성이다. 이러한 모습은 남선비, 여산부인, 그리고 일곱 형제들에게 두루 사용된다. 다섯째, 그녀는 사람을 죽일 줄 아는 냉혈적인 여성이다. 여산부인의 인정을 무시하고 연못에 밀어뜨려 죽였고, 일곱 형제를 죽이려고 그들의 간을 내도록 남선비를 사주(使喚)한다. 이러한 그녀의 행위는 쟁쟁형 가정소설과 계모형 가정소설 속의 악인형 여성과 비교하기 어렵다. <문전>에서는 ‘노일’이 본처를 죽이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 일이 그녀의 선천적인 성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거니와, 전실 소생을 죽이려는 것은 고전소설에서처럼 그녀가 가족 구성원에게 느끼는 소외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는 ‘노일’이 고전소설의 악녀와 달리 ‘본부인, 첩, 계모’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노일’의 악인형 여성상은 고전소설에서 정형화된 악녀의 이미지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지니는 악인형 여성상은 제주도 여성만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악인형 여성이 가지는 전형성을 다른 문학 속의 인물들과 대비하여 그녀가 가지는 특징적인 면을 더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령 앞서 언급하였던 가정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계모나 첩들과 비교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문전>에 보이는, ‘노일’과 여산부인의 상이한 성격상 대립,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악인의 음모, 본처 살해와 그의 자식들에 대한 살해 시도, 이를 수행하는 악인의 역동성, 막내를 돕는 여러 신격들의 행동, 악인 패배하는 결말의 극적인 반전, 그리고 사후의 신격화 등은 신화로서 성격뿐만 아니라 구비 서사문학의 즐거움을 상당히 갖고 있다. 우선 노일이 수행하는 악행담은 독자적인 서사체로도 활용 가치가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악인형 여성상은 역동적이며 전형적인 인물로도 손색이 없다. 또한 ‘노일’과 대응되는 여산부인이 함께 벌이는 갈등 양상은 다양한 서사적 전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나의 인물이 독자적으로 캐릭터화할 수 있으려면, 다른 서사문학의 주인공들과 차별적인 주목할 만하고 매력적인 성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형상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만, 문학을 ‘문화의 콘테츠로 활용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무속신화가 우리의 의식과 문학, 영화, 만화, 연극 등의 문화 여러 방면에 더욱 더 널리 활용되면서, 우리에게 신화적 상상력을 키우는 데 한몫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5, 1~350면.
- 문창현, 『풍속무음』 하(영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4, 1~467면.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290면.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922면.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1~969면.
- 현용준, 『제주도신화』, 서문당, 1976, 1~314면.
-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1~573면.
- 赤松智城·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상,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1~394면.
- <칠성풀이>(1), 성씨녀본, 임석재, 『줄포무악』, 문화재관리국, 1970, 73~94면.
- <칠성풀이>, 김옥순본, 박순호, 『한국구비문학대계』 5-4(군산), 박순호, 정문연, 1984, 375~395면.
- <칠성풀이>, 최문순본, 최길성, 『한국무속지』 1, 아세아문화사, 1992, 71~84면.
- 김재용, 「<문전본풀이>의 무속신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73~98면.
-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104면.
- 김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혼인 연구」, 『논문집』 제36집(인문사회편), 제주대학교, 1993, 173~196면.
- 김혜숙·김행신, 「가족구조와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제주도 민가를 중심으로」, 『논문집』 제33집(인문·사회과학편), 제주대학교, 1991, 385~401면.
- 서대석, 「칠성풀이 연구」,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323~365면.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1~247면.
- 이수자, 「제주도 큰굿 내의 신화에 나타난 가족 구성상의 특징과 의의」, 『구비문학연구』 제12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1.6, 231~256면.
- 이지영, 「무속신화에 나타난 구약모티프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427~457면.
- 장덕순, 「고대소설의 악녀들」,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일지사, 1973, 227~236면.
- 장유정, 「<문전본풀이>를 통해본 제주도 가족제도의 한 특징」, 『구비문학연구』 14,



2002, 311~342면.

장유정, 「제주도 <문전본풀이>와 아이누의 <카무이 후치 아이유카르>의 비교 고찰」, 『국문학연구』 제7호, 국문학회, 2002, 155~179면.

정주혜,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대비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8, 1~75면.

좌혜경, 「즈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호, 민속학회, 1998, 181~199면.

한상현, 「고소설에 나타난 악녀의 실상-쟁쟁형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96, 1~89면.

현용준, 「문전본풀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34~435면.



## Stereotyping the Evil Female Figures based on

*Munjeon-Bonpuri*-with a Focus on **Noiljeodae-gwyil**-

Lee, Ji-young

This paper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Noiljeodae-gwyil(Noil)** as a model of an evil female. Since an evil figure like her rarely appears in mythic stories, we examined several different versions of <Munjeon-Bonpuri> to study her characters and evil activities. In doing so, we first summarized the story of the original version and compared it with other versions. The whole story is divided into the story of 'the conflicts between wife and concubine', the story of 'the conflicts between former wife's children and step-mother', and the story of 'resurrection of dead mother and occupation of deity.'

**Noil** is the key figure in the myth. She killed the first wife of **Namseonbi** and further attempted to kill his seven sons from former wife. But the youngest of the seven thwarted **Noil**'s plot of killing the sons with his wit and the help from several deities.

**Noil** as an evil female makes a striking contrast and is defiant against the first wife **YeoSan**. **Noil** holds multiple positions such as concubine, the first wife, and a step-mother. She is the god of the foreigner and arrival god, and the god of the toilet of the house as well.

Wickedness of her behaviors can be classified in three groups-

1) destroying the order and happiness of the **Namseonbi**'s family, 2) making **Namseonbi** powerless and destroying his life, and 3) killing the first wife and the seven sons from former wife. The idea of avenging these evil behaviors of hers becomes highlighted toward the end of the story.

Based on the review of evil conducts of **Noil**, we present the five characteristics of an evil female figure. First, she enjoys herself. She is good at the Baduk game, enjoys gambling, and is a skilled dancer. Second, she seduces males, is aggressive in love affairs, and is very much jealous. She is faithful to her own feelings and clever. Third, she is never a good housewife, not like **YeoSan**. Fourth, she is a liar and is very deceptive. She is at the same time very calculative. Finally, she is cold-blooded, killing people.

These characteristics of **Noil** are not consistent with the evil female figures appearing in other family novel. This is believed to be related to the multiplicity of her character, which includes the first wife, concubine, and step-mother, all for one single person. Therefore, the evil nature of Noil has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 evil female figures in other stories.

Key words : villain, characteristic, concubine, step-mother, family relation, Noiljeodae-gwyl